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역할 공동체 실행위원회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 다음 주는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공동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종강여행이 7월7일(화)~10일(금)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여름여행이 7월7일(화)~9일(목)까지 양양에서 있습니다.
- 지역별 사랑방 전반기 모임은 17일(금)까지입니다.
방별로 전반기 방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27 호

2026년 7월 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방공동체 방문 후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공동체-코이노니아)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재적인 다스림에 응답하며 실제로 구현해 가는 공동체. 사랑방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며,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막 교육관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든 지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한 참 식사 중이었는데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정재훈 담임 목사님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식사를 할 건지 물어보셨고, 멋쟁이 학생들은 식사 도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와중에도 환대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식기를 가져다주고 안내를 해주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외부인을 위촉되게 하고 소외되게 하는 활기나 덩달아 분위기 편승하는 가벼운 활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환대와 초대, 이에 응답하는 과정은 서로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꼽으라면 디아코니아 방모임과 그루터기 방모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주인공이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를 볼 수 있었고 공동체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체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동체가 나를 보호한다.' '공동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삶은 관계다.'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이해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하이라이트는 그루터기 방모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전도사님은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삶 뿐 만 아니라, 지나 온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의 사고와 회복과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 교회와 남편 목사님의 사고를

나눴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버티고 견디지만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주시는 지, 나를 데리고 가 달라고, 나를 붙잡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요즘 겁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에 하는 이유는 삶의 용기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 방모임 분들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성경과 삶을 기반으로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신학과 그 자리를 지키는 증인들의 헌신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43년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유지한 증인들. 교회가 무엇인지 교육적 삶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증인들. 각자의 역할을 한 팀이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의 교통(코이노니아)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주께서 당신의 디아코니아(종, 집사, 헌신자)를 통해 성만찬을 베푸시는 자리였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맺어진 공동체와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랑방공동체 탐방은 끝났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 주 예수 다스리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 헌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방 공동체의 섬김과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 임현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
< 로마서 7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0 336 / 70
기도 : 나송주 집사
성경 : 역대하 13장
제목 : 믿음으로 유다를 지켜낸 아비야

1. 내용: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다 (What)
<문단구분>
1~3절 남 왕국과 북 왕국의 전쟁
4~12절 아비야의 연설
13~22절 아비야의 승리
2. 의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Why)
 - 1) 우리는 주님의 법도대로 사나, 너희는 주님의 법도를 저버렸다.
 - 2) 옳은 말을 들으면서도 상대방을 해할 생각만 하고 있다.
 - 3)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3. 적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자. (How)
 - 1) 믿음의 4대째에서 이룬 역사이다.
 - 2) 신앙의 자손이 가진 힘이며, 이룬 성취이다.
 - 3)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자.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중략)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홀로아리랑 춤을 부모들만 보기 아
까워 며칠 후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모임에서 아이들이 다시 춤을 추
었습니다. 모두 아이들 춤에 환호합니다. 그날 이후 몇몇 사람이 제게
와서는 아이들이 홀로 아리랑으로 부채춤을 추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데릭은 그날 머릿속에서 하루 종
일 아리랑 노래가 맴돌았다고 하네요.

작년에 한국 전쟁 70년을 맞으면서 이곳 형제자매들에게 영화
<국제시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저와 같이 일하
는 로버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 형제는 평상시 별로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제게 와서는 어제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
다고 합니다. 대니 할아버지와 다비드 할아버지는 영화를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제게 찾
아와 한국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줄 몰랐다면 한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7~8학년 선생님도 오셔서 너무 파워풀한 영화
였다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며 감
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이곳 형제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대여섯 번을 봤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당연하지만 이곳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
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홀로
아리랑’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아리랑이 아니
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 브루더호프 이야기>에서 발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51 : 10-12, 15-17 인도자
3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48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로마서 7 : 15-25 설교자
449 젊은이사랑방
“ 영적 성장통, 거룩한 고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337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민아 장성아 / 봉헌위원 : 석용범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인 삼았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적 성장통, 거룩한 고뇌

인간의 이중성.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내면의 모순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상의 지혜는 인간을 계몽하려고 하지만 죄의 본성은 '아는 것'만으
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기준을 깨우고 죄를 고발
하는 선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거룩한 고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
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에는 반드시 영적 성장통이 따릅니다. 하
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갈등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
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화의 길.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의지'로는 육신의 남아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
다. 나를 주인 삼았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
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삶을 맡겨드립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월요일 오전에 감자를 캐습니다. 감자밭을 지날 때마다 “잘 자라라!” 축복해주고, 앞에서 신기하게 감자 냄새가 나는 것도 말아보고, 점점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을 지켜봤었는데 드디어 감자를 캐는 날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양 손에 야무지게 장갑을 끼고 감자밭으로 출동! 미어캣 그리고 두더지로 변신! 열심히 땅을 파습니다. 큰 감자를 발견하면 “선생님! 왕감자를 캐어요!” 감탄을 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다 조그마한 감자를 발견하면 “아기 감자예요!”라고 알리며 귀여운 아기를 보듯 아기 감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감자를 열심히 캐고 상자에 모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일을 하니 땀도 나고 여기저기 흙이 묻어 가렵기도 했지만 그만하겠다는 꾸러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자에 가득 담긴 감자를 영차영차 옮기는 것 까지 꼬마 농부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하교 할 때 열심히 캔 감자를 한 꾸러미씩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신나게 감자를 들고 가는 꾸러기들의 뒷모습에 감자 같이 단단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목요일에 7월 나들이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 잡월드에서 직업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1~4학년은 어린이체험관에서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네 시간 동안, 5, 6학년은 청소년체험관에서 10시에 1회차, 11시 20분에 2회차, 13시 20분에 3회차 이렇게 3회의 체험을 각각 60분씩 하였습니다.

분당까지 9시 30분 도착을 목표로 해서 가야 했기에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8시에 축석에서 모였고, 잡월드에서 도착하자마자 1~4학년은 LTSS 시간에 했던 자신의 취향과 지망을 고려해서 5회 이상의 체험

을 해보았고, 5, 6학년도 궁금하고 해보고 싶었던 체험을 미리 예약해서 갔기 때문에 예약 내용대로 잘 참석하였습니다.

그 날 청소년체험관에는 다른 일반중학교 단체 학생들이 세 팀 정도 함께 해서 아주 짹 찬 상태였고, 반면 어린이체험관은 평소 잡월드와 달리 한산한 편이어서 우리 친구들의 상황만 되면 하고 싶은 체험은 다 해보았습니다.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한번 해보니 요령과 호기심이 더 생겨서 모두들 또 가보고 싶다고들 합니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1학기가 바야흐로 대단원을 맞이했습니다. 멋쟁이들은 종강발표회에서 보여줄 코너들을 연습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생님과 만나는 기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말면담의 자리에서는 한 학기를 돌아보며 이룩한 성장과 성숙을 나누고,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알려주거나 보완할 점도 나누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면담들 가운데는 웃음꽃도 피고,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멋쟁이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들을 품으며 면담은 대개 마무리됩니다.

토요일의 멋쟁이들은 학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식사들을 하면서도, 몇몇은 긴장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는 개별 연습과 청소를, 오후에는 최종 리허설을 마치면서는 교육관 이곳저곳이 각종 부서와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들로 꾸며졌습니다. 대망의 종강발표회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전부 내보였습니다. 코너 하나 하나를 시작하기 전의 설렘과 마치고 난 뒤의 보람, 그리고 종강발표회를 끝마쳤을 때의 후련함까지- 이번에도 멋쟁이들은 축제를 하나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종강여행을 떠납니다. 모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 교사 : 이어진 >

퇴직을 위한 준비

얼마 전 자격증 시험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이 회사에 근무한 지도 벌써 29년이 넘어 30년이 다되어 가더라고요. 입사한 지가 그리 오래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년이면 정년퇴직이랍니다.

요즘 같은 연배의 우리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 퇴직 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 해두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퇴직 후의 삶이 20년~30년 가까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퇴직할 나이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몸도 마음도 아직 불편한 데가 없고 건강한 상태이니 일하고 싶은 의욕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후 자금을 잘 준비해 둔 사람이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든 퇴직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년연장이니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저의 나이와는 아무래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요즘 퇴직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퇴직 후에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을 보니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 계속 미루다가 지난달에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책을 보는 것도 오랜만 인지라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방금 보았던 것도 다음 페이지에 갔다 다시오면 새로운 것이 되는 신기한 경험도 체험중입니다.

물론 자격증을 따다고 해서 경력도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언젠간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번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다음 자격증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랑방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찾아서 한 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루티기사랑방 이승호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14장, 170장

성 경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2절

말 씀 :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위한 기도>

지난 주 발생했던 강진으로 2천명의 사망자와 1만 명의 부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실종자는 4만 명이 넘어서 앞으로 사상자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여러 전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춘천 KAC를 위한 기도>

춘천 예수마음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재세례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연합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와 공동체와 제자도의 가치를 품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멧쟁이학교 학기말 면담과 종강 여행을 위해서
- * 다음 주에 있을 실행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 * 아픈 지체들 회복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장마가 오기 전에 감자를 모두 수확했습니다. 꾸러기, 어린이들도 감자를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멧쟁이들과 함께 감자를 캐고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감자의 양이 많기도 하고 장기보관도 어려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 모임은 7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축하하는 자리와 함께 월요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의 유익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뉘시길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